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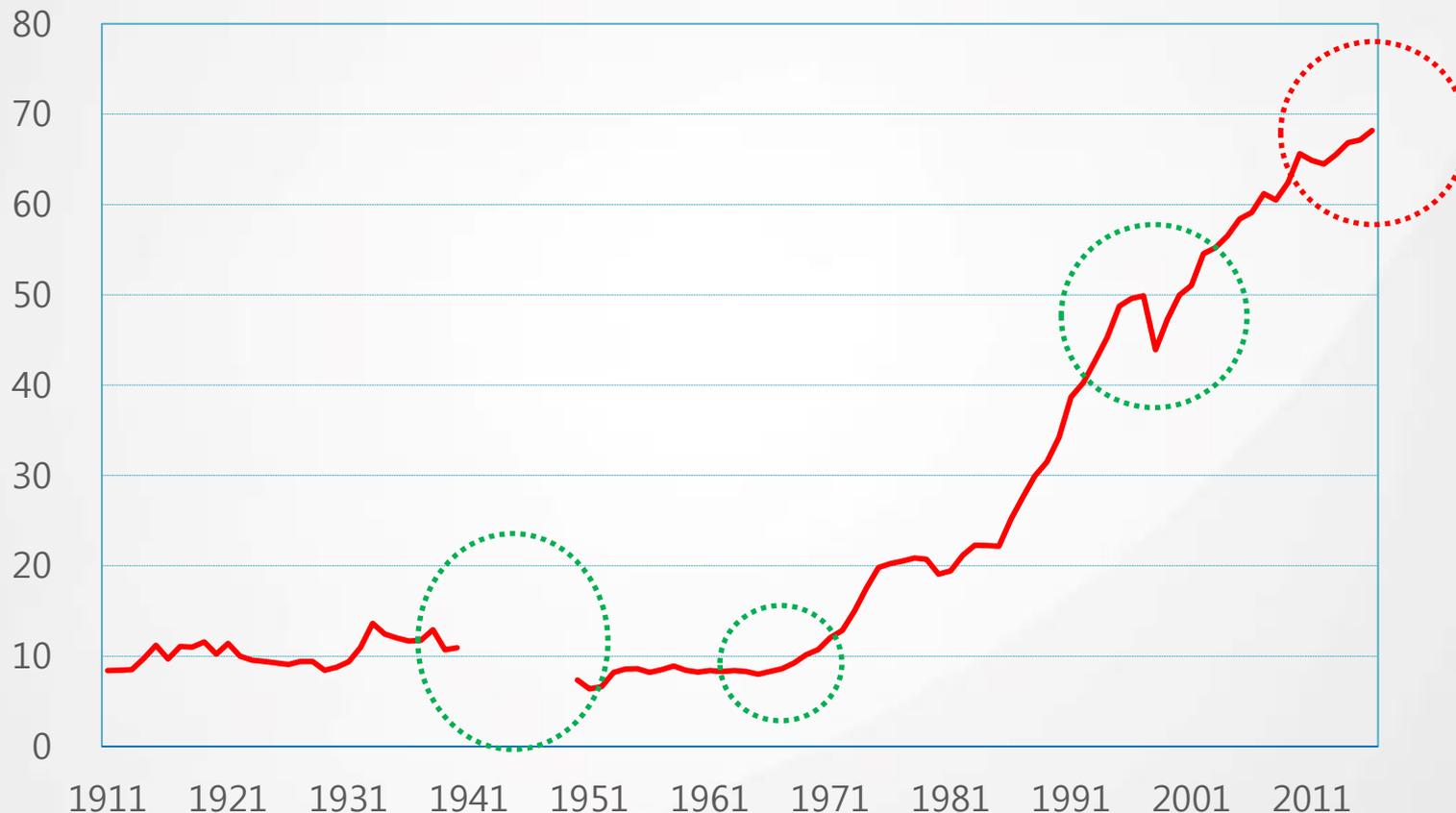
2018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조장옥

2018년 1월

1인당 GDP(한국/미국, %, Maddison Project)

SO G A N G U N I V E R S I T Y
B E A S P R O U D O F S O G A N G
A S S O G A N G I S P R O U D O F Y O U



한국경제의 발전: 1인당 GDP

- 미국의 1인당 GDP대비 한국의 1인당 GDP
 - 1962년 이전 증가하는 추세(catch-up)가 발견되지 않음
 - 증가하는 추세는 1963년 이후임
 -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 회복
 - 가장 빠른 catch-up은 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에 달성됨
 - 외환위기 이후(보다 정확히 말해 1992년 이후) catch-up의 속도가 계속 둔화되는 추세임
 -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임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및 생산비중: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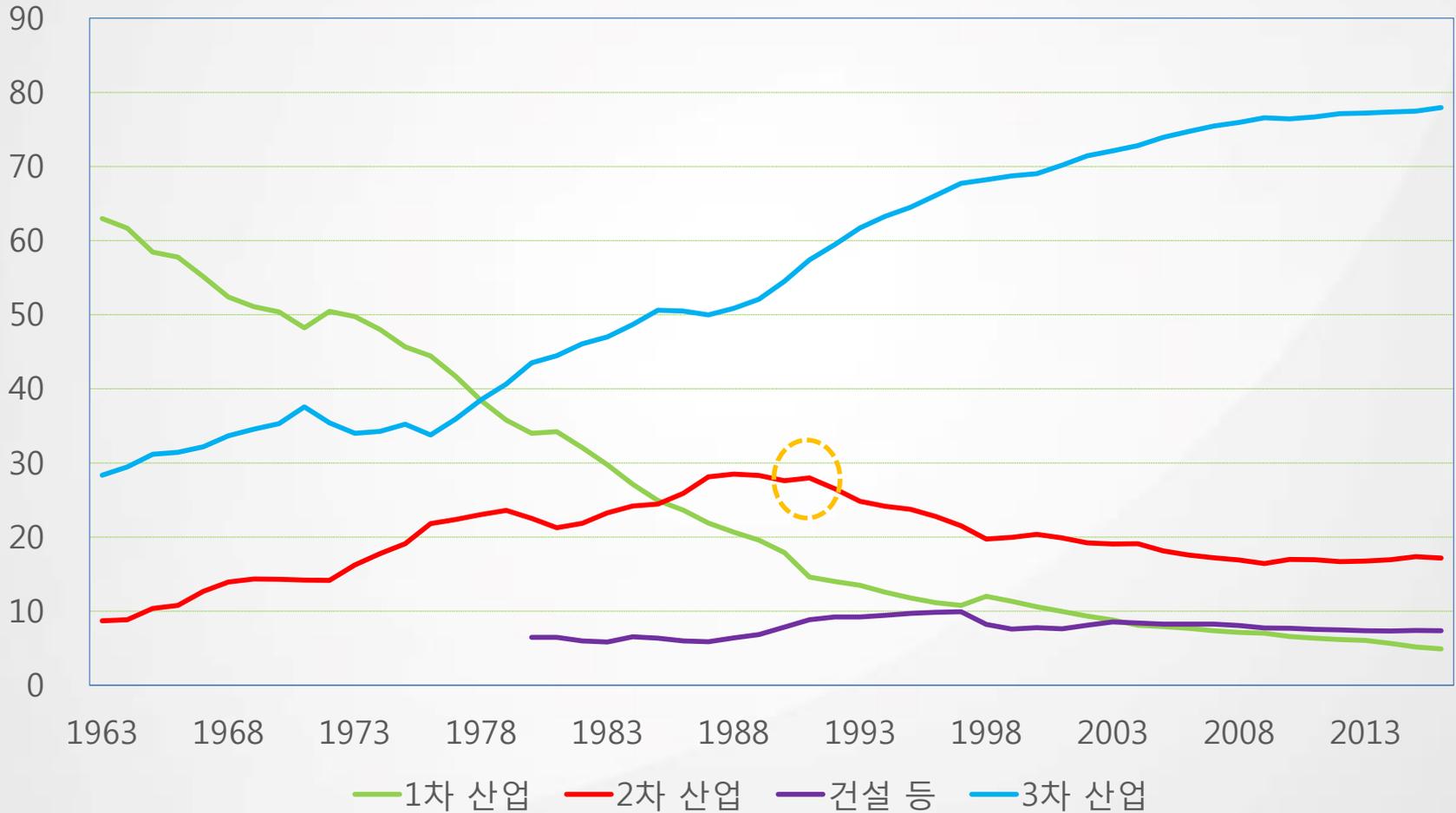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1차 산업		2차 산업		건설 등		3차 산업	
	고용	생산	고용	생산	고용	생산	고용	생산
1963	63.4	45.3	8.7	15.4	2.5	3.6	25.4	35.7
1970	50.4	28.9	14.3	20.4	2.9	6.4	32.4	44.3
1980	34.1	15.9	22.5	25.6	6.2	9.8	37.3	48.7
1990	17.9	8.4	27.6	28.0	7.4	11.7	47.1	51.9
2000	10.6	4.4	20.4	29.3	7.5	8.8	61.6	57.5
2010	6.6	2.5	16.7	30.9	7.5	7.3	68.8	59.3
2016	4.9	2.2	17.2	29.5	7.4	9.0	70.6	59.2

- 고용과 생산이 1차 산업(농·림·어업)에서 2차(광·공업),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이동
 - 고용
 - 1963년: 1차(63.4%), 2차(8.7%), 3차(25.4%), 건설(2.5%)
 - 2016년: 1차(4.9%), 2차(17.2%), 3차(70.6%), 건설(7.4%)
 - 생산
 - 1963년: 1차(45.3%), 2차(15.4%), 3차(35.7%), 건설 등(3.6%)
 - 2016년: 1차(2.2%), 2차(29.5%), 3차(59.2%), 건설 등(9.0%)
- 산업별 고용과 생산비중의 추세적 변동이 주는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비중: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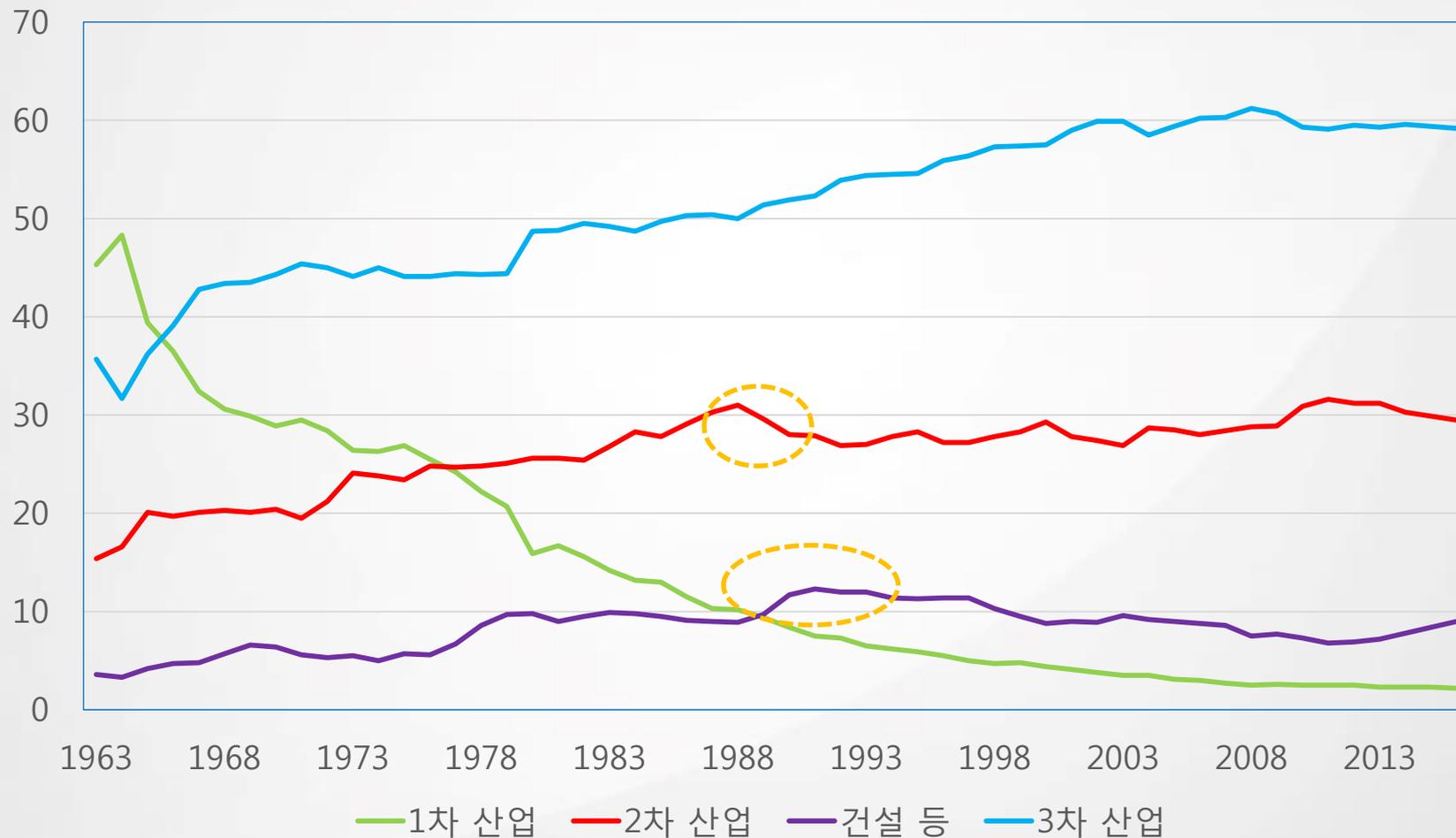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노동의 산업별 이동
 - 1991년까지 농업부문 취업자를 광공업과 서비스부문이 흡수
 - 1992년 이후에는 모든 부문(농업부문과 광공업)의 취업자 감소를 서비스업이 흡수
 - 산업공동화
 - 하락하던 광공업 취업자비중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이후 17.0%에서 등락
- 광공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26.5%, 1991년 28.0%)경임
 - 1992년은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해임
 - 1992년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장기경로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임
 - 2차 산업은 해외이전이 가능하나 서비스업은 대부분 불가능

한국의 산업별 생산비중: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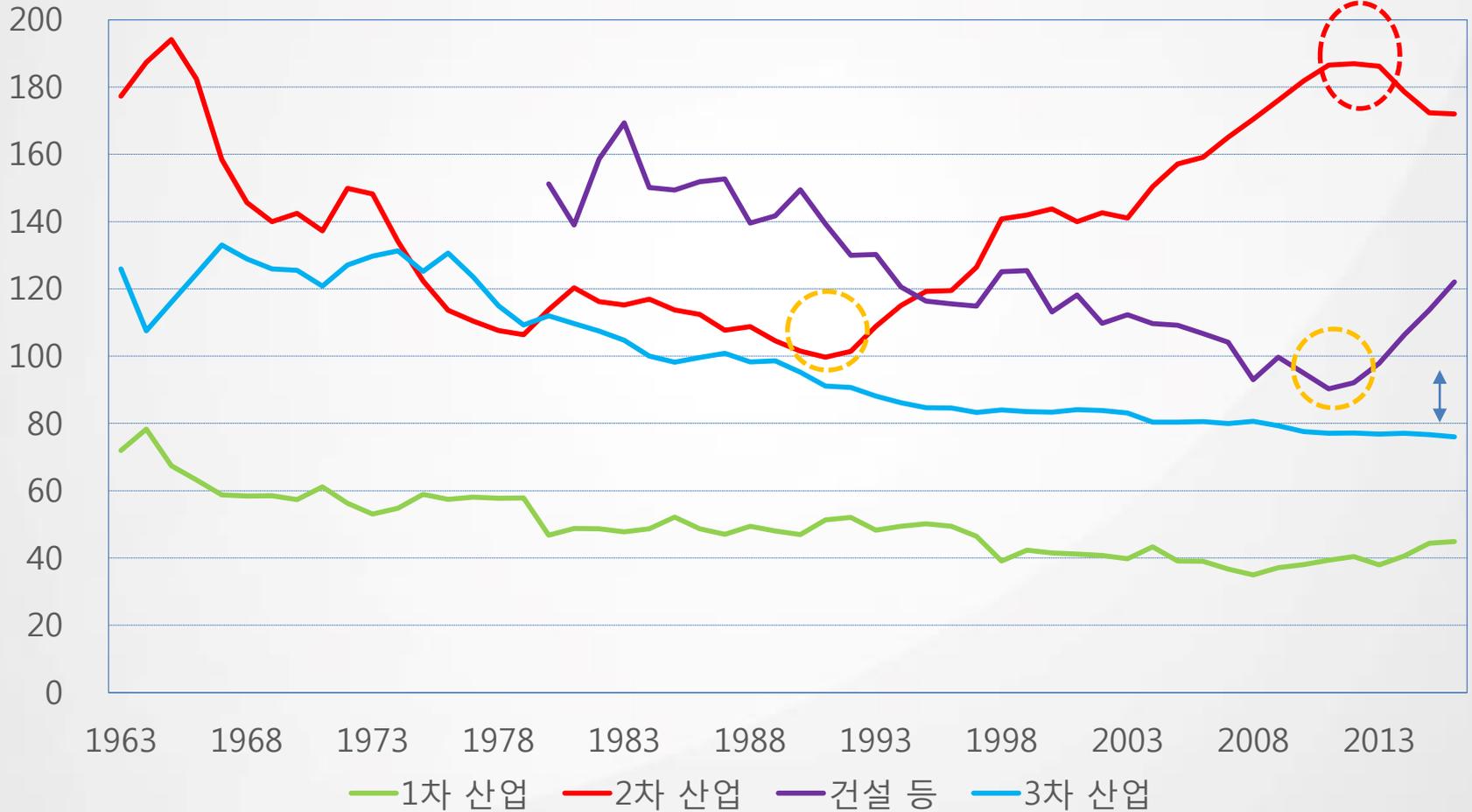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은 노동유입과 함께 증가하나 2002년 이후 (취업자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체
- 광공업부문의 고용비중은 1992년 이후 10%p 이상 감소하였으나 생산비중은 30%p 근처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추세는 산업별 상대적인 생산성에 반영됨
 - 광공업부문의 생산비중은 1988년 올림픽과 주택건설 붐에 따라 건설업의 생산비중이 높아지면서 감소

한국의 산업별 상대적 생산성(전산업=100)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생산성은 평균에서 점차 멀어지나 2002년 이후에는 경제전체 평균의 40% 선에서 정체
- 농업이외 산업의 생산성은 1991년까지 서로 수렴하다
1992년 이후 격차 증가
 - 광공업생산성 증가(낮은 생산성 기업의 해외이전)
 - 서비스업, 건설 등 생산성 감소(해외이전이 어려운 산업)
 - 건설 등은 2011년 이후 반등(4대강?)
 - 2012년 이후 제조업생산성 빠르게 하락
 - 2013년은 뒤에서 살펴볼 저성장 장기경로의 시작 시점으로 짐작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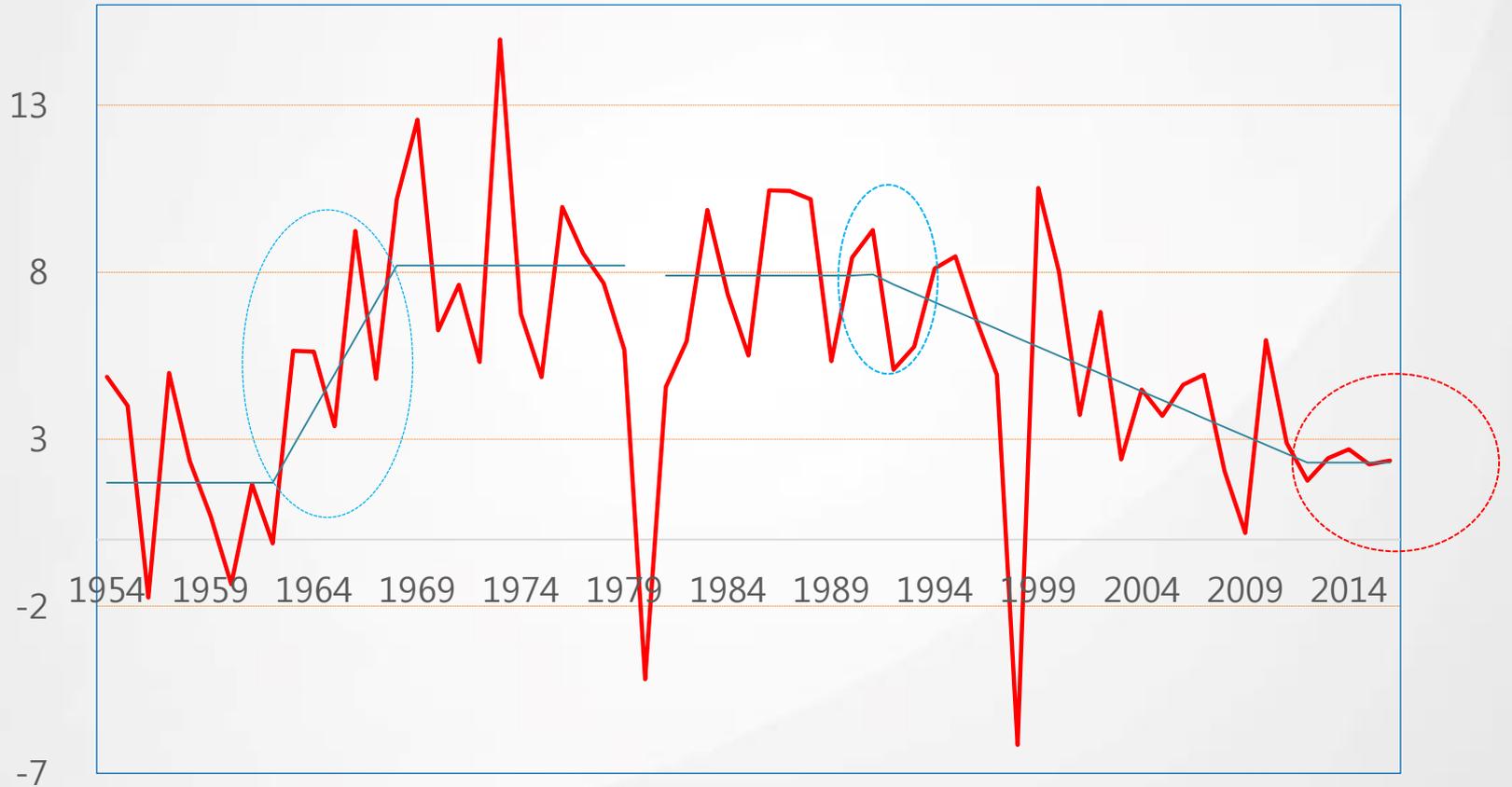
한국경제의 성장률(% , Maddison Project)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한국경제의 발전단계(6.25전쟁 이후)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한국경제의 발전단계

- ? ~ 1962: 장기정체기(Malthusian trap)
- 1963 ~ 1968: 도약기(take-Off), Rostow
- 1969 ~ 1990: 고도성장기
- 1991 ~ 2011?: 저성장 수렴기
- 2012? ~ ? : 장기 저성장기

한국경제의 발전단계: 장기정체기(? ~1962)

- Malthusian trap
 - Catch-up이 일어나지 않음
 - 이조시대 이전
 - 자료가 없지만 trap에서 벗어났다고 짐작하기는 어려움
 - 일제시대
 - 극심한 변동성(작은 경제, 외부충격)
 - 연평균 2.6%
 - 역시 trap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1954~1962
 - 전후복구기
 - 변동성이 크게 감소
 - 연평균 1.7% 성장

한국경제의 발전단계: 도약기(1963~1968)

- 성장률의 증가
- Catch-up이 시작됨
 - 자본축적이 주를 이룸
 - (외국)자본과 함께 기술이 유입
- 1963년: 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로 방향전환

고도성장기(1969-1991): 1970년 한국 수출의 구성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1970	1980	1990	2000	2004
섬유	40.8	28.6	21.6	10.3	5.6
가발과 눈썹	12.2	0.3	0.2	0.0	0.0
합판	11.0	2.0	0.1	0.0	0.0
전자	3.4	11.4	23.1	36.0	34.6
철강	1.6	9.4	8.3	6.6	7.3
화학	2.0	4.6	4.3	12.5	12.2
조선	0.3	3.5	4.3	4.8	6.0
자동차	0.0	0.3	2.0	0.6	9.7
반도체	0.0	3.0	7.0	15.1	10.4
컴퓨터	0.0	0.0	3.9	8.4	6.5

저성장 수렴기(1992 ~ 2011?)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위기
 - 과감한 개방화(세계화)가 이루어짐
 - 경제성장률의 하락추세는 경제위기(1997~1998)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님
 -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지 위기가 원인이 아님
 - 위기는 현상이었지 원인이 아니었음
 - 1990년대 초반 이미 시작
 - 경제위기는 하락하는 추세를 멈추고자 한 무모한 정책에 따른 인재라고 볼 수 있음
 - 당시의 정책은 하락하는 추세를 관리하는 차원이었어야
 - 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세계적으로 개방도가 높음
 - Economist는 세계경제의 풍향계의 하나로 한국의 무역수지를 보고 있음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1?~?)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장기저성장경로에 들어선 것인지?
 - 2011~2016: 1인당 GDP 평균성장률=2.3%
 - 2010(2.9%)~2017(3.0%): 1인당 GDP 평균성장률=2.5%
 - 1인당 GDP의 잠재성장률이 2.5%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1인당 GDP 잠재성장률 2.5%를 유지할 수 있을까?
 -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 그러나 적어도 **다음 경기침체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됨.
 - 그때가 되면 지금의 잠재성장률이 유지될 것인지 더 가라 앉을 것인지가 분명해질 것임.
 -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은?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
 - 일본형 장기침체에 관한 두 가지 가설
 - **금융가설**
 - 버블붕괴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인한 투자· 소비 위축 때문에 장기불황 초래
 - **실물가설: Hayashi-Prescott(2002)가설**
 - 90년대 이후 기업의 자금차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토요일 휴무제 도입, 공휴일 증가,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간감소와 자본생산성감소**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
 - **금융가설이 옳다면**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음
 - 현재 우리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있지만 기업이 투자하는데 자금을 구할 수 없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 **실물가설이 옳다면**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다분함
 - 지금 우리의 경제환경은 실물부문에 많은 문제, 특히 **정부로부터의 문제**를 안고 있음.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큼. 왜?
 - 즉, 우리 사정은 금융가설보다는 **실물가설에 가깝다고** 생각됨.
 - 왜?
- (1) **고도성장기의 나쁜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
 - 특히 고도성장기에 들여온 **규제가 positive의 형태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점
 - **Negative로의 전환**은 크게 보아 법안 하나면 가능한데 왜 못하는지?
 - 지금의 규제라면 **혁신성장은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필패할 것임**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큼. 왜?

(2) 위정자들의 **경제인식이 안이**하다는 점

- 특히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규제와 시장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안이한 인식이 지배
 - 정부의 **시장불신은 결국 국민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 이미 국민(시장참가자)은 **정부보다 작은 존재가 아님**
 - 최근 **부동산시장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개입방식은 정부의 천박한 시장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큼. 왜?

(3) 무리한 최저임금의 인상, 노동시간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자본생산성을 하락 시키는 전형적인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 Hayashi-Prescott가설을 상기할 필요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무리한 최저임금의 인상
 -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집단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 최저임금노동자의 전체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 최저임금 노동자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 노동시간 감축

- 노동보다 경제적 만족을 중시하는 정책은 당연한 것임
- 노동시간을 감축해야 하는 노동자-기업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
- 이는 자본생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크게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큰 틀만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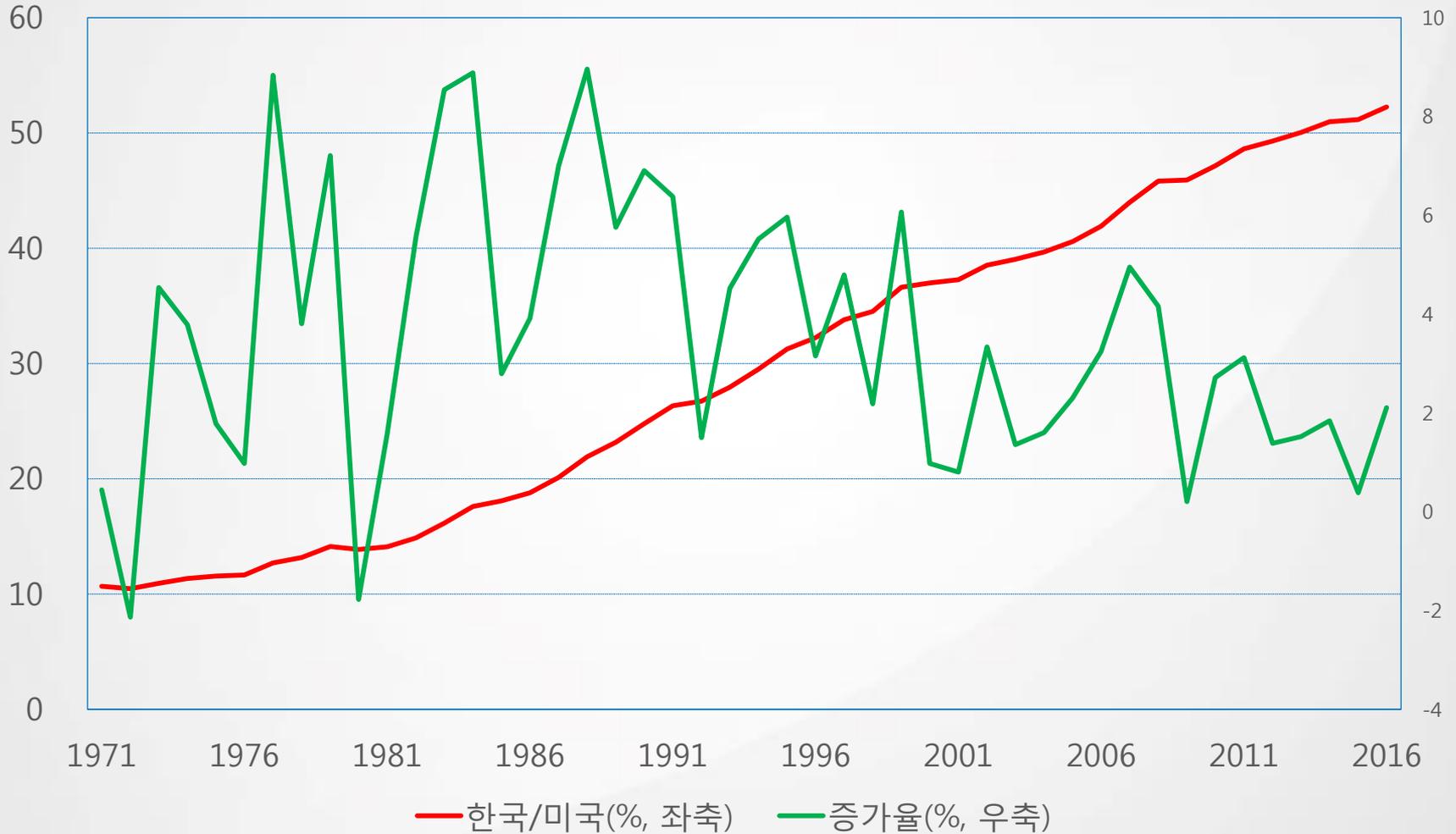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는가에 대한 성찰 없이 진행되고 있음
 - 비정규직은 정규직 때문에 양산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
 - 과도한 정규직보호를 완화함으로써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부터 착취하는 렌트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비정규직은 자연스럽게 정규직화 할 수 있음.
 - 지금과 같이 자기들만의 렌트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은 과감히, 진정한 의미에서 동료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포용적인 노동조합으로 대체되어야 함.
 - »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적폐 이익집단은 강성 정규직 노동조합임.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2% 중반의 잠재성장률은 유지 가능할까?

한국의 노동생산성(시간당, OECD.stat, 2010 PPP)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최근 생산성의 추이는 일본형 저성장 장기침체의 전조?
 - 노동생산성이 아직 미국의 50% 정도인데
 - 그 성장률은 계속 하락추세

한국의 자본생산성 증가율(% ,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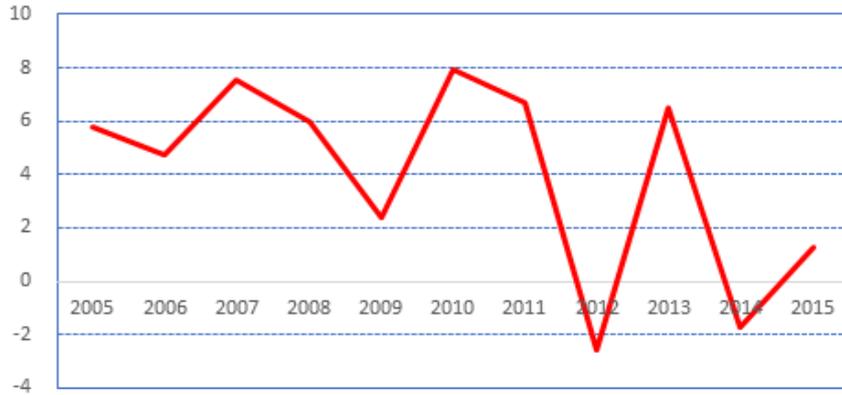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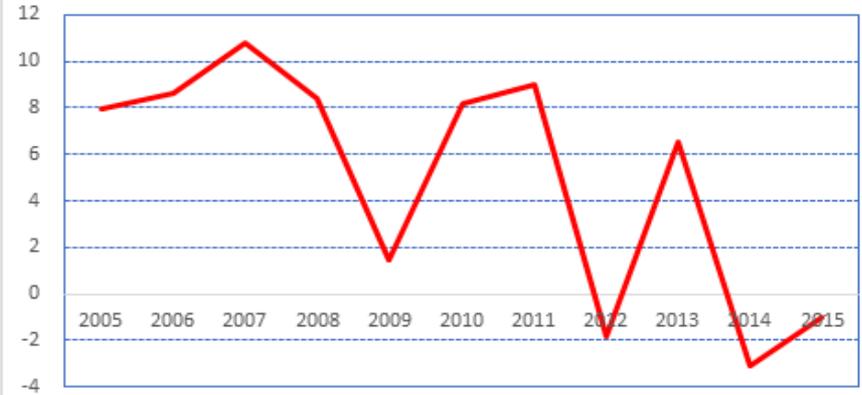
- 자본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고 미국보다 낮는데
 -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 미국은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와 함께 조세구간을 단일화
 - Apple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계획발표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겹쳐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이 현실화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산업생산성은 증가하고 서비스산업생산성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부문별 노동생산성(% ,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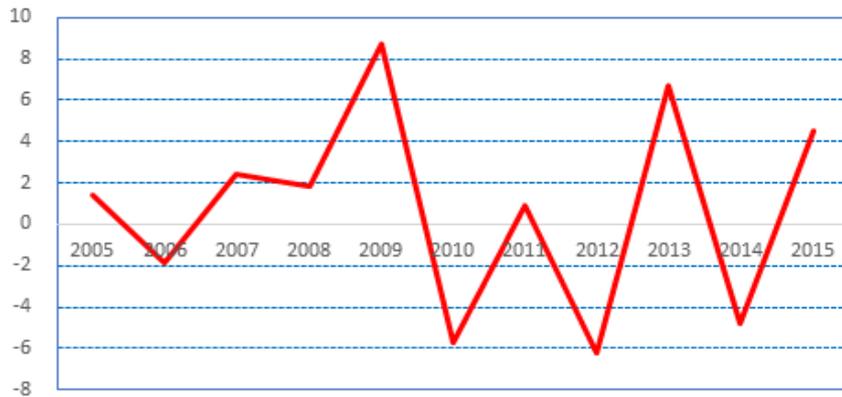
부동산 제외 비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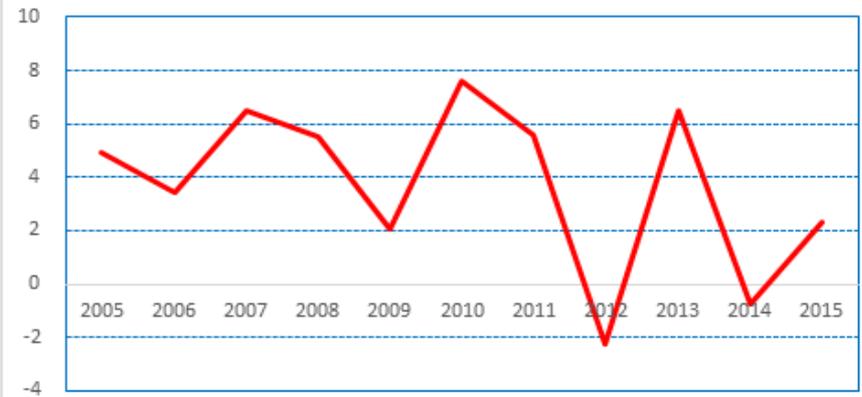
에너지 포함 광공업



건설



부동산 제외 서비스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부문별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 이후 하향세가 뚜렷함
 - 에너지 포함 **광공업의 경우 하향세가** 다른 부문에 비해 더욱 두드러짐.
 - **서비스 부문의은 생산성**은 이미 낮아 더 떨어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향세가 광공업보다 낮은 것으로 보일 뿐임.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 대책은?
- 선진국형 제도를 구축하고, 선진국형 정책을 추구할 필요
 -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재분배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임
 - 이와 같은 개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는 조세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증대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

-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함.
 - 이런 병적으로 경직적이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용납하는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몇이나 있나?
 - 가진 자들의 극단적인 노동운동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모든 국민이 후세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을 추구하는데 교육당국은 평준화를 추구하니 사교육이 범람하는 것
 - 최근 영어교육 문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평준화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보장되나?
 - **천편일률적인 교육시스템**의 일대혁신이 요구됨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정책의 선진화도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청와대 참모진의 정책개입은 적폐의 근본임
 - 각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 위임할 필요
 -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존중되어야
 - 경제를 너무 가벼이 보고 깊은 생각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처(비용)를 남김을 명심해야
 - 잘못된 정책은 애국심의 문제이기도 함
 -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개념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단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나쁜 습성을 버려야
 -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재정을 통한 단기부양정책이 크게 효과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
 - 한국의 현재 발전단계에서 재정지출승수가 얼마라고 보나?
 - 정책효과를 노린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고 작은 정책은 효과가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
 - 매년 편성하는 작은 추경은 효과가 크지 않고 낭비적인 요소가 태반이므로 지양해야
 - 재정정책은 현 발전단계에서는 단기보다 장기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재정정책은 장기 잠재성장률의 결정요인을 살피고 이를 고양하여야 함
 - 특히 R&D, 교육, 제도의 혁신 등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

선진국형 장기 저성장기(2012?~?)

SOGANG UNIVERSITY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 현재의 가능한 선택은?
 -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고
 - 소득재분배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의 개혁없이 복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임.
 - 위의 개혁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현상유지가 오히려 나은 선택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는 추락할 것임.